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7호 【루게 제25756호】 주제 106 (2017)년 9월 4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주제106(2017)년 9월 3일 오전에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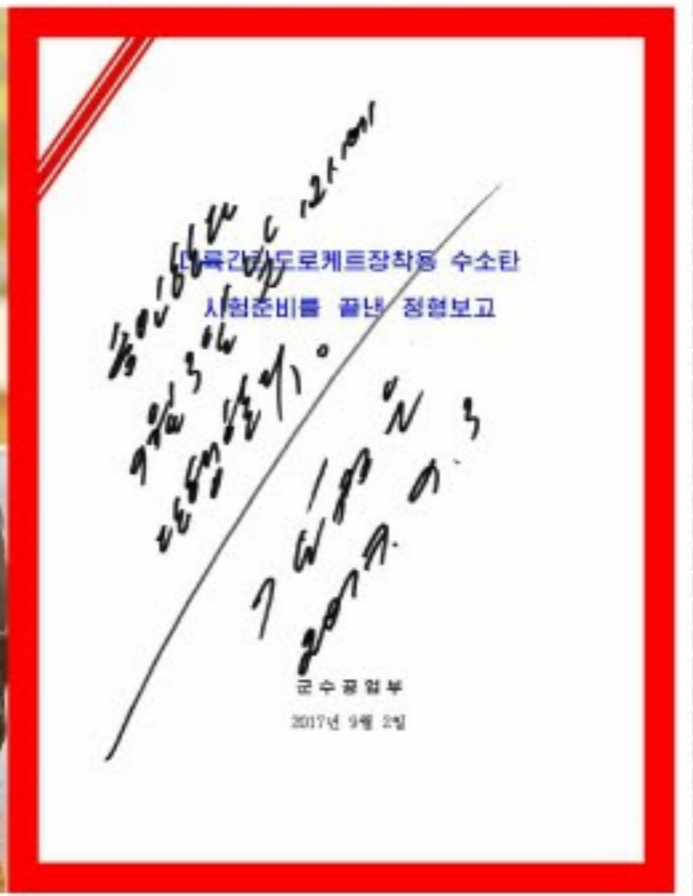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김정은동지,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가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먼저 현 국제 정치정세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를 분석평가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가 진행한 핵무기 병기화연구사업실행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었으며 김정은동지께서 시험을 단행할데 대한 명령서에 진필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또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책동을 견제하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부문별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집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 나라 북부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수소탄시험은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시험속정결과 총폭발위력과 분열 대 용합위력비를 비롯한 핵전투부의 위력지표들과 2단열핵무기로서의 질적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하였으며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분출이나 방사성물질투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증되었다.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의 압축기술과 분열연쇄반응시발조종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차계와 2차계의 핵물질리용률이 설계에 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

수소탄 2차계의 핵융합위력을 높이는데서 핵심기술인 핵장약에 대한 대칭압축과 분열기폭 및 고온핵융합점화, 뒤이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분열-융합반응들 사이의 호상강화과정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다는것을 확증함으로써 우리가 수소

탄제작에 리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결합구조와 다층복사내폭구조설계가 매우 정확하며 경량화된 열부사차폐재와 중성자차폐재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1차계와 2차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리적과정들에 대한 우리 식의 해석방법과 계산프로그램들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2차계의 핵장약구조 등 주제식으로 설계한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공학구조가 믿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시험에서는 또한 핵탄두폭발시험과 각종 탄도로켓시험발사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밀집배치형핵폭발조종체계의 믿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은 우리의 주제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뿐아니라 핵전투부의 동작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되며 우리의 핵무기설계 및 제작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핵시험장의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어왔다.

인민이 안겨 주는 따사로운 품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이 어린 창전거리 살림집들을 돌아보고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어려오는 창전거리, 불발은 창가 마다에 넘쳐나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못 잊을 추억을 부르며 어서 오라 우리를 이끄는듯싶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위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럽없는 유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웅장화려하게 솟아난 창전거리의 새 집들에 보금자리를 건곤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주인공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속에 인겨주는 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전하고싶어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에 넘치도록 만안았으니 그 격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하지만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그후 심봉수동무는 당의 높은 정치지침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는 안태와 두 딸과 함께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도 참가하였다.

어제 그날이라, 어찌 그날이라, 어찌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소 마린해가지고오신 《세계명작영화집》을 안겨주시며 이집에는 동화집을 불만 안이들이 없으니 잘 보냈어우다가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보여주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집안에는 외손녀들이 태어났다. 귀여운 두 외손녀들이 《세계명작영화집》을 한장 한장 번지지 웃고 떠들 때에는 온 집안이 웃음꽃이 피어오르고 원수님 사랑에 지도받은 눈물이 젖어든다고 가정주부인 한은순동무는 격정에 겨워 말씀하였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교육자 가정의 대를 잇게 되어 기쁩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은 괴물까지도 인간적인 애국자정의를 불같은 맹세였다.

한 모습을 우리는 눈앞에 그려볼수 있었다.

유풍한 새 집을 맡은것이 너무도 꿈만 같아 며칠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장승너동무, 평범한 로동자가정에 생중

기마냥 끊임없이 흘러드는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진정한 온 나라 천만식솔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천이배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피날수 있는것이다.

따뜻한 축복속에 넘쳐나는 행복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한한 격정에 잠겨있는 이불부부를 바라보시며 이마 김혁동무는 지금쯤 태어난 애기가 아들이겠는가 딸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겠지라고 하시며 동무의 생각을 어떤가고 다정히 물어오셨다. 방직공영원인 어머니를 닮은 딸을 낳았으면 한다 김혁동무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지어주시었다고 한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불부부에게 축복을 부여하시고 사랑의 선물을 한가득 안겨주시셨을뿐 아니라 영방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다음에 이불부부에게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후에는 딸이 태어났다. 그들은 김혁동무의 축복속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김봉수》라고, 딸의 이름을 《김충성》이라고 지었다.

우리는 온 나라에 소문난 로동혁신자, 방직공영원인 문강순동무를 만나서도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문방을 나섰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인민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분과 초분 조직되며 뛰고 뛰는 그의 불같은 모습이 방불하게 어려웠다.

우리는 창전거리 살림집들의 창가 마다에 흘러넘치는 맑은 불빛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마치도 햇빛과 같고 고요하게 넘쳐나고 있는 인민의 행복을 안겨준다. 그 불빛들이 자꾸만 따사롭게 소중히 인겨 들수록 우리 심장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흘러넘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비상히 강화되는 우리 공화국의 무적무강한 위력앞에 절건하여 야만적인 반공화국제제소들을 밀려놓은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이 땅에 침략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원수님께서는 애국인민들의 사기를 함으로 어퍼서는자들의 망상이라고 하여 달리 말할수 없다.

바로 우리에게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힘, 최강의 무기가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무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대한 추진력이다.》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가장 위대한 무기인 일심단결! 단결은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도 이루어질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일심단결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으며 어떠한 그로도 강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4년전 인민군해군용사들이 전투임무수행중 중 못하지 않게 희생되었을 때였다.

그들은 지난날 그 어떤 영웅적 위훈을 세워 온 나라가 다 아는 유명한 전우원들이 아니었다. 다만 혁명의 군복을 입고 성실한 복무의 자욱자욱을 새겨오다가 전투임무수행중 중 못하지 않게 희생된 군인들이었다.

하지만 우리 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귀중한 전사들을 잃은것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어 잘못 이루시며 그들의 희생에 높은 위훈으로 빛내어주시는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었다.

일군이 그이의 정무실에 들어섰을 때 책상우에는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사진들이 놓여있었다. 오래동안 용사들의 사진을 보고 또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갈라진 음성이 울려퍼졌다. 그 불빛들이 자꾸만 따사롭게 소중히 인겨 들수록 우리 심장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흘러넘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만사감을 울킨 송고한 동지애

원연적으로 제작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국인민들의 사기를 함으로 어퍼서는자들의 망상이라고 하여 달리 말할수 없다.

바로 우리에게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힘, 최강의 무기가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무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대한 추진력이다.》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가장 위대한 무기인 일심단결! 단결은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도 이루어질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일심단결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으며 어떠한 그로도 강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4년전 인민군해군용사들이 전투임무수행중 중 못하지 않게 희생되었을 때였다.

그들은 지난날 그 어떤 영웅적 위훈을 세워 온 나라가 다 아는 유명한 전우원들이 아니었다. 다만 혁명의 군복을 입고 성실한 복무의 자욱자욱을 새겨오다가 전투임무수행중 중 못하지 않게 희생된 군인들이었다.

하지만 우리 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귀중한 전사들을 잃은것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어 잘못 이루시며 그들의 희생에 높은 위훈으로 빛내어주시는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었다.

일군이 그이의 정무실에 들어섰을 때 책상우에는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사진들이 놓여있었다. 오래동안 용사들의 사진을 보고 또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갈라진 음성이 울려퍼졌다. 그 불빛들이 자꾸만 따사롭게 소중히 인겨 들수록 우리 심장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흘러넘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오날도 만사감의 심금을 뜨기 게 울려주는 동지애의 화폭은 이 뿐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전사들의 모습을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추억속에 길이 남겨주시리 용사들의 형상인물 여여차려나 보아주시며 모든 대학을 세워주시고 용사분과 한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모든 일을 뒤로 미루시고 한달을 더 달려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떠나간 전사들을 잊지 못해서 시든 용사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용사분에게는 용망 포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으라고 하시었다.

너무도 뜻밖의 말씀이어서 일군들은 모두다 굳어졌다.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인민사랑의 역사 영원히!

본사기자 김 일 권

찾아온 보람이

우리가 장구의 만수동 1보람이 도착했을 때에는 창전거리의 활황한 불야경이 수도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하고있었다.

활한 조영빛이 쏟아져내리는 현관으로 들어선 우리는 3층 2호집을 향하여 걸음을 내었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총체로 느껴지는 새 살림집에 입성한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우리 원수님께서 그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되었다.

잠시후 우리의 눈앞에 정히 새겨진 낱말이 안겨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제101(2012)년 9월 4일 다녀가신 살림집이 9집에서 우리를 맞아준것은 평양 기계공해대 교원인 심봉수동무였다. 방가음이 실린 그의 얼굴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볼가까이 모시었던 헌애는 긍지와 행복감이 넘쳐흘렀다. 《정말이지 지금도 생각하면 골만 갑니다.》

그는 이렇게 정정을 떠놓으며 우리를 공동살림방으로 이끌었다.

납작하게 깔린 살림방벽면에는 5집전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집 식구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평범한 교육자가정에 그처럼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시고도 몹소 찾아오시어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제 입사를 하였는가, 생활하는데 불편한것은 없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는 그이께서는

이라고 하시며

새집들이한 자식의 집을 찾은 친구 부모의 심정으로 세민정에 불리시어 손수 수도꼭지도 틀어보시었다.

심봉수동무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와 인애는 물론 두 딸이 모두 교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가정은 조국의 미래를 맡아키우는데 항신을 바쳐가는 애국자가정이라는, 찾아온 보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신의 축복도 부여하시는데 대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참으로 복받은 가정이었다. 세 집에서 살고있는 행복만도 가슴벅벅한 행복도 잃지 못할 풍만 같은 행복을 분

친 아버지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그날의 시연은 3층 2호집에도 소중히 어려있었다. 마침 우리는 피곤기에 올라 골방 집으로 들어서는 장승너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평양우편국 정상세신분소에서 우편통신원으로 일하고있는 그의 가정에도 온 가족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찍은 뜻깊은 기념사진이 정히 모셔져있었다.

추억에는 눈길로 기념사진을 바라보며 장승너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웠는지 모른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8살 난 둘째아들 박훈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같이 학교에 다니는가, 몇살인가 등을 물어주시어 살뜰한 정을 기울이시었다.

아이들의 방에도 둘러서서 박훈이가 코페용으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는 그이께서는 그림을 완성하시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다정히 가르쳐

다심한 손길

주시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그의 가르치심대로 박훈이는 학교 꽃밭에 물을 주는 남학생과 나학생의 모습을 형상한 그림을 훌륭한 완성하여 자기 방의 벽에 걸어버렸다.

우리 원수님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대견해하시랴.

경고 나이 어린 소년의 그림이라고만 할수 없었다. 정정 그정을 완연히 자애로운 어머니의 따뜻한 정과 사랑의 화폭이었고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상징하는 우리 미래의 밝고 희망찬 모습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특 축주신 수가 찍혔다고 걸되던 장승너동무의 딸아들 박훈이는 벌써 조선적공대학의 여학생이 되었다. 우리는 그를 만나볼수가 없었다. 이통현황중 에 있었을것이다. 하지만 훌륭한 축주선수가 준비해가는 박훈이의 품을

다심한 손길

주시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그의 가르치심대로 박훈이는 학교 꽃밭에 물을 주는 남학생과 나학생의 모습을 형상한 그림을 훌륭한 완성하여 자기 방의 벽에 걸어버렸다.

우리 원수님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대견해하시랴.

경고 나이 어린 소년의 그림이라고만 할수 없었다. 정정 그정을 완연히 자애로운 어머니의 따뜻한 정과 사랑의 화폭이었고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상징하는 우리 미래의 밝고 희망찬 모습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특 축주신 수가 찍혔다고 걸되던 장승너동무의 딸아들 박훈이는 벌써 조선적공대학의 여학생이 되었다. 우리는 그를 만나볼수가 없었다. 이통현황중 에 있었을것이다. 하지만 훌륭한 축주선수가 준비해가는 박훈이의 품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싼 마리노공화국 집정관들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싼 마리노

싼 마리노공화국 집정관

빘 마 자블리 각 하 바네싸 담브로지오 각 하

나는 싘 마리노공화국 국경선에 즈음하여 당신들과 귀국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풍요의 리익에 부합되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6(2017)년 9월 3일

별 앙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

덕성관람 조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관부들속에 백두산살생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면밀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조직사업을 체계화하고있다. 특히 일군들과 선동원들을 잘 준비시켜 그들이 불같은 현실속에 들어가 화신식산동사업에 힘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제관들에게 내려간 한 일군은 작업의 현장에 막장에서 격적없는 선동사업을 진행하였다.

조국의 무장투쟁과 인민의

로동생산원 연 정 형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지니는것은 인민대중의 참된 삶의 요구

주제조선의 강용한 기상과 노도지는 건국에 걸친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지금 우리에게 대한 최대의 정치군사적압박과 극악무도한 경제적제재뿐아니라 만동적인 사상문화침투책동과 비합리한 심리박박을 미친다. 이렇듯, 우리 인민의 건전한 혁명신념과 계급의식, 투쟁의식을 미비시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것이 적들의用心이다.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제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끈끈히 무장하고 이데이적인 광범이 불어와도 그 요구대로만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우리가 부단히 고난과 시련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나 못하는 힘을 잃지 않고 혁명적인인민의 결속을 견고히 하며 내외나갈수 있게 하는 정신적기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지니야 할 사상의식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사명의 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의지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연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고 자기 운명을 훌륭히 개척해나갈수 있다.

만일 사람이 자주적의식을 상실하게 되면 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운명을 의탁하게 되며 나중에는 제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미저리가 되고만다. 세상에 주어진 운명, 때로난 팔자만 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지닌 인민에게는 실사 관경에 처한다 해도 위험한것이 커다를 가지는 일이 추호

도 있을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일에 부닥치게 된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과 압박속에 서전인미담의 혁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인민은 험악무도한 모진 시련과 난관을 겪을수 없다. 하지만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온전히 무장한 인민은 그 어떤 고난이 앞을 막아도 겁도 과왕우왕하지 않고 주동적으로 화를 무로, 역경을 승경으로 전환시켜나간다. 우리 인민이 남들같으면 열덜면도 꾸꾸러졌을 최악의 도전과 환경속에서 언제나 신심과 박판에 넘쳐 약망하는 새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오늘과 같이 위대한 강국의 당면과제에 임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다. 지금 우리 인민이 부단히 단결한 정세속에 온갖 적대세력들의 엄중하 도전속에서도 당과 수령께 운망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라 곧바로, 합치게 나아가며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나가고있는것은 주제사상, 자주의 혁명사상을 생명으로 간직하고있기때문이다.

신념은 변할이 없어야 하며 끝까지 이어야 한다. 순변할지 지키는 신념이 따로 있고 어려울 때 지키는 신념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그 어떤 열차에 타더라도 단단히 믿고 혁명의 완성을 역세게 걸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신념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지니었으므로 하여 우리 인민의 백발백중의 신념의 강행군은 한치의 뒤퇴도 없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우리 인민도 두가 황천 혼령과 권리를 누려나갈수 있게 하는 자랑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과 같다. 그 무엇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해나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자주적의식을 지니지

않는다면 굴복하는 정세나 일시적인 곤난앞에서 혁명적의지와 의지를 잃게 되며 당과 조국, 사회와 민족은 물론 나중에는 자기자신과 부모형제도 물러보는 속물이 되고만다.

우리 혁명적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항일혁명투사들과 전하의 영웅전사들, 원령마사대의 기수들, 1990년대의 자강도인민들은 하나같이 주제사상을 체현한 신념의 강자였다. 불굴의 용맹이애국사투를 이 전향가능성도 환된 인생의 전라를 감고있었다가 수십년세월 차디찬 감랑에서 고향에서 돌아와 혁명에 다진 명세를 끝까지 고수할수 있었을것이다. 오늘날의 시대는 혁명적신념이 가장 값있는 평가되는 시대이다. 지금 우리 인민이 부단히 단결한 정세속에 온갖 적대세력들의 엄중하 도전속에서도 당과 수령께 운망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따라 곧바로, 합치게 나아가며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나가고있는것은 주제사상, 자주의 혁명사상을 생명으로 간직하고있기때문이다.

신념은 변할이 없어야 하며 끝까지 이어야 한다. 순변할지 지키는 신념이 따로 있고 어려울 때 지키는 신념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그 어떤 열차에 타더라도 단단히 믿고 혁명의 완성을 역세게 걸어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신념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지니었으므로 하여 우리 인민의 백발백중의 신념의 강행군은 한치의 뒤퇴도 없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우리 인민도 두가 황천 혼령과 권리를 누려나갈수 있게 하는 자랑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과 같다. 그 무엇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해나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자주적의식을 지니지

최후승리의 신심드높이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화력을 집중하자

자력갱생의 전통을 비약의 무기로 틀어쥐고

진정한 혁명정신과 높은 실력을 지닌 기술자, 기능공들의 대우를 가지고있는것은 혁명기 계련합기업소의 첫째가는 자랑이다.

기술자, 기능공들이 만리마속 도창조를 위한 오늘의 대고조전 속에서 혁명의 전통, 혁명의 본때를 남겼을 때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이력 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이 주목되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자력갱생의 대진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지키고 고교주동하는것이 중요하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 선지적인 힘을 넣은것은 기술자들에게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오직 앞으로만 돌진해나가는 굳결있는 공적정신을 길어 심어준것이다.

우선 그들의 심장마다에 연합기업소에 갖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영적을 길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갔다.

이와 함께 모든 기술자들이 현실속에 길이 들어가 생산실현과정에 제기되는 문제에서 기술혁신과 함께 뛰어나도록 하였다. 당에서 준 과업은 어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렇게 하나 제 날자에 수행하려는 로동계급의 혁명성을 실현 활동과정에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기술자들에게 진정한 혁명정신을 심어주는 하나의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대상설비생산에서 제기가 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생산된 설비들이 해당 단위에 제때에 가달아 온을 내도록 하는데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되였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세 세대 기술자들이 늘어나는데 맞게 그들에게 대담하게 골짜기를 깎고 임무를 맡겨주고 제때에 수행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창설에 보내준 대형선소분리기, 심장무라코 환수 있는 라인정장기를 제작할 때에도,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곱갈 압송기를 제작할 때에도 그러 하였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일꾼들이 늘 길에 있었기에 김정숙동무를 비롯한 설계가들이 위하여 며칠밤을 편성하고 힘들고 풀었고 인민대학습당과 과학연구기관들을 찾으면서 끝내내 맡겨진 과제를 어렵게 수행해나갔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학원의 전통을 뜻없이 이어가던 의지를 안고 힘찬 전진을 벌려 과학자들이 당면한 설비제작의 기술적문제를 푸는데만 급급하면서 기업소의 진강기술발전계획수행에 낮은 열정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책임일군은 그날 기술발전 부기사장과 해당 부문 기술일꾼들의 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주요안건으로 제기하였다. 그런데 일부 일꾼들이 진강기술발전계획수행에까지 돌릴 기술력량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극성에 사로잡혀있는 그들에게 학원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지 않으면 정진으로 일해야 하는것을 깨우쳐주는것이 필요였다. 당책임일군은 학원의 10명 당원들의 뜻을 이어 수십년간 과학기술도 당을 충성하게 만들어온 전세대 기술자들을 내세워 정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들 계기로 기술일꾼들과 학원전설기계설계연구소 그리고 학원동맹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한사람같이 똘똘이 뭉쳐 되었다.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바쁜 속에서도 공장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은 맡겨진 쉬운 일

2. 8 비날론 련합기업소 합동사업인 연합화학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단위의 기술발전목표수행에서 당일꾼들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가.

2. 8비날론련합기업소 합동사업인 연합화학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 그에 대한 대답이 있다.

위대 한 명도 자 집 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꾼들도 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 사업을 잘할수 있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현안할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무연탄에 의한 내화학공정공정을 꾸릴 때의 일이다.

제일 난제는 중유대신 무연탄에 의한 소성방향을 완성하는것이였다. 적은 석탄으로 소성온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노력을 지대한 힘과 공상기술집단이 비용회식소성방향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실패의 인력을 무수히 넘어야 했다.

《요만한 난관앞에 주저할것소? 어서 일어나 원인을 찾

고의 품을 내놓는것이였다. 그것을 보는 지배인의 눈빛이 대뜸 밝아졌다. 공장에서 쓰는 원료들의 도대 매정정형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던것이였다. 그 자료에 기초하여 지배인과 해당 일꾼들은 현지답사를 끝내고 원료를 짧은 시간에 확보하여 생산원가를 낮출수 있었다. 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과 다방면적인 실력이 당일꾼에게 없었더라면 이런 혁신적인 일을 내놓을수 없었을것이다.

당일꾼의 높은 실력은 지난해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을 거쳐 올해는 전사회에까지 울려퍼져 도안의 가정들에 널리 도입된 가정용 보온불풍에도 비껴갔다. 내화학부산물로 연소효율을 높일수 있는 보온불풍을 만들수 없을까 하고 늘 사색하던 초급당위원장은 석탄 소비량을 줄이면서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혁신에 손을 댈어줄었다. 기술혁신실적과 함께 하는 새로운 실리있는 보온 불풍은 호령이 되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호소나 하고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시는것이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진부하고 생각하는 일꾼들에게 우리는 말 할수 없다.

과학기술의 위력에 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지만 당일꾼들이 높은 실력으로 기술발전을 주도하는 기수가 되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 향 환

기술발전의 주동하는 기수가 될 때

당적지도가 없으면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 사업을 잘할수 없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현안할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무연탄에 의한 내화학공정공정을 꾸릴 때의 일이다.

제일 난제는 중유대신 무연탄에 의한 소성방향을 완성하는것이였다. 적은 석탄으로 소성온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노력을 지대한 힘과 공상기술집단이 비용회식소성방향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실패의 인력을 무수히 넘어야 했다.

《요만한 난관앞에 주저할것소? 어서 일어나 원인을 찾

거보나 거의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을 한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대중적기술혁신운동,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었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로동자들은 기술혁신, 창의고안을 신비하게 여기면서 기술자, 기술공들만 하는것으로 생각하였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종업원들속에서 기술혁신의 주인은 대중이며 대중의 지혜가 발동되어야 자력갱생의 마지못해 높은 기술수준으로 만들수 있다는 내용의 교양사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평범한 로동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한 로동자가 밀자바퀴를 만들 생각을 하였을 때였다. 초급당위원장 리정희동무는 비록 크지 않은 발기때만 전격 지지해주었다. 그의 일하는 현장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도 풀어주었다. 형태때문에 애를 먹을 때에는 기술자들이 도와주도록 하였다. 마침내 그는 짧은 시간에 가지없는 밀자바퀴를 만들어내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그의 소명을 널리 소개시키고 일반화하기 위하여

그 어느 단위에나 인재가 없지 않다. 인재는 결에 있다. 대안선유리공장 남포유리 그릇분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하지만 그의 과학적인 혼자가 인민적인 열정을 일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그에게 이 과업이 맡겨지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짧은 시간에 고압연압기를 수리해내고야말았다.

공장의 일꾼들은 높은 기술자들도 보배였지만 쓸어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일을 놓고 모두가 기뻐하며 초급당위원장 박봉선동무의 생각을 즐겼다.

공장은 그와 같은 대학졸업생들과 재능있는 기능공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왜 그들의 재능이 용당할 빛을 내지 못하였는가.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결에 있는 인재들의 재능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장은 심각한 고통을 찾았다.

인재타발을 할것이 아니라 인재들을 찾아야 한다. 인재는 바로 우리밖에 있다.

이때부터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인의 인재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과 함께 그들에게 대담하게 임할수 있도록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자동조종계통에 대한 난다는

용역로백면감시조종계통을 완성하고 유리불탈용인내장치를 우리 식으로 실현하였으

며 불투어에 의한 용탕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많은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여 당정책관들의 지지를 얻어내어가고있다.

정황은 그 어느 단위에나 인재는 다있고 그것을 찾아내세워주고 이끌어주어야 할 책임적인 임무를 해당 단위 당조직들이 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김 혁 철

평천일용필수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평천일용필수품공장이 작아도 큰 공장이라 불러주는 비결을 우리에게 두 명만을 놓고 찾게 되었다.

위대 한 명도 자 집 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은 기술의 주인이며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이력 일꾼들에게 종업원들만큼은 요구한다는 취제과정에 기술혁신참가자수가 대단히 많았기때문이다. 말하자면 종업원수와 기술혁신참가자수를 대비해보기 위해서였다. 따

일터에 넘치는 창조적 숨결

평천일용필수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저보나 거의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을 한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대중적기술혁신운동,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었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로동자들은 기술혁신, 창의고안을 신비하게 여기면서 기술자, 기술공들만 하는것으로 생각하였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종업원들속에서 기술혁신의 주인은 대중이며 대중의 지혜가 발동되어야 자력갱생의 마지못해 높은 기술수준으로 만들수 있다는 내용의 교양사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평범한 로동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한 로동자가 밀자바퀴를 만들 생각을 하였을 때였다. 초급당위원장 리정희동무는 비록 크지 않은 발기때만 전격 지지해주었다. 그의 일하는 현장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도 풀어주었다. 형태때문에 애를 먹을 때에는 기술자들이 도와주도록 하였다. 마침내 그는 짧은 시간에 가지없는 밀자바퀴를 만들어내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그의 소명을 널리 소개시키고 일반화하기 위하여

적지 않다. 초급당위원장은 그들이 다니는 대학을 자주 찾아와 학습정형을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도 세워주었다. 한 녀성로동자가 일하면서 대학을 취득하는 성격으로 졸업할수 있는 것도 당조직의 방조를 떠나서 가능하였다.

로동자들의 실력이 높아지는 과정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은 더욱 활발히 벌어졌다.

지배인이 호응높은 구멍판작화정에 재봉실이 자주 끊어져 속출 때를 때 불에 적신 실을 이용하면 끊어지지 않았기때문에 말한 로동자였다. 실이 끊어지고 실로 재봉하니 끊어지는 현상이 없었다.

너무도 자그마한 일이어서 기술일꾼들은 물론 본인이기도 잊었던 사실을 초급당위원회는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조직의 정확한 평가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서 승부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로동자들의 실력을 높이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는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공장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에 망라된 로동자들이

인재는 결에 있다

그 어느 단위에나 인재가 없지 않다. 인재는 결에 있다. 대안선유리공장 남포유리 그릇분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하지만 그의 과학적인 혼자가 인민적인 열정을 일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그에게 이 과업이 맡겨지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짧은 시간에 고압연압기를 수리해내고야말았다.

공장의 일꾼들은 높은 기술자들도 보배였지만 쓸어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일을 놓고 모두가 기뻐하며 초급당위원장 박봉선동무의 생각을 즐겼다.

공장은 그와 같은 대학졸업생들과 재능있는 기능공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왜 그들의 재능이 용당할 빛을 내지 못하였는가.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결에 있는 인재들의 재능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초급당위원장은 심각한 고통을 찾았다.

인재타발을 할것이 아니라 인재들을 찾아야 한다. 인재는 바로 우리밖에 있다.

이때부터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인의 인재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과 함께 그들에게 대담하게 임할수 있도록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자동조종계통에 대한 난다는

평천일용필수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평천일용필수품공장이 작아도 큰 공장이라 불러주는 비결을 우리에게 두 명만을 놓고 찾게 되었다.

위대 한 명도 자 집 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은 기술의 주인이며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이력 일꾼들에게 종업원들만큼은 요구한다는 취제과정에 기술혁신참가자수가 대단히 많았기때문이다. 말하자면 종업원수와 기술혁신참가자수를 대비해보기 위해서였다. 따

일터에 넘치는 창조적 숨결

평천일용필수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저보나 거의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을 한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대중적기술혁신운동,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었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로동자들은 기술혁신, 창의고안을 신비하게 여기면서 기술자, 기술공들만 하는것으로 생각하였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종업원들속에서 기술혁신의 주인은 대중이며 대중의 지혜가 발동되어야 자력갱생의 마지못해 높은 기술수준으로 만들수 있다는 내용의 교양사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평범한 로동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한 로동자가 밀자바퀴를 만들 생각을 하였을 때였다. 초급당위원장 리정희동무는 비록 크지 않은 발기때만 전격 지지해주었다. 그의 일하는 현장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도 풀어주었다. 형태때문에 애를 먹을 때에는 기술자들이 도와주도록 하였다. 마침내 그는 짧은 시간에 가지없는 밀자바퀴를 만들어내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그의 소명을 널리 소개시키고 일반화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색기와생산공정 완성

618건설돌격대에서

618건설돌격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려있는 색기과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디다.》

색기과생산공정은 평양시에서 당위원회에서 운명하는 기공과정에 꾸려졌다.

이 공정에서는 일반기와 아크릴제의 장제와 광배를 분부하고 건조시켜 색기과를 생산하게 되어있다. 벨트판메이커의 한 로동직법으로 색기과를 생산하는 이 공정이 만가동하는 경우 많은 색기과를 생산할수 있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강일환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올해 대상건설돌격대 성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색기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자재와 인력을 지원해 주었다.

그의 일꾼들은 기술을 몰랐고 자신부터 실용공이 되어 앞장

618건설돌격대에서

618건설돌격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려있는 색기과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디다.》

색기과생산공정은 평양시에서 당위원회에서 운명하는 기공과정에 꾸려졌다.

이 공정에서는 일반기와 아크릴제의 장제와 광배를 분부하고 건조시켜 색기과를 생산하게 되어있다. 벨트판메이커의 한 로동직법으로 색기과를 생산하는 이 공정이 만가동하는 경우 많은 색기과를 생산할수 있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강일환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올해 대상건설돌격대 성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색기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자재와 인력을 지원해 주었다.

그의 일꾼들은 기술을 몰랐고 자신부터 실용공이 되어 앞장

618건설돌격대에서

618건설돌격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려있는 색기과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디다.》

색기과생산공정은 평양시에서 당위원회에서 운명하는 기공과정에 꾸려졌다.

이 공정에서는 일반기와 아크릴제의 장제와 광배를 분부하고 건조시켜 색기과를 생산하게 되어있다. 벨트판메이커의 한 로동직법으로 색기과를 생산하는 이 공정이 만가동하는 경우 많은 색기과를 생산할수 있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강일환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올해 대상건설돌격대 성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색기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자재와 인력을 지원해 주었다.

그의 일꾼들은 기술을 몰랐고 자신부터 실용공이 되어 앞장

과학기술중시는 생산장성의 지름길

승한과수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농업일꾼들이 찾은 방도의 하나가 바로 곤충문화재와과학기술적인 과학기술이었다.

일꾼들의 지도원에 농장에서 자체로 창작한 노예이자기 《사파나》를 보고보았다.

이 작품은 하나의 농업과학기술혁신제기라고도 말할수 있다.

꽃피는 시기 농약부리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야 하며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편리적으로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제과와 같은 이 작품을 평양시농업대학에서 과학기술교육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작품은 평양시농업대학에서 과학기술교육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작품은 평양시농업대학에서 과학기술교육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승한과수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농업일꾼들이 찾은 방도의 하나가 바로 곤충문화재와과학기술적인 과학기술이었다.

일꾼들의 지도원에 농장에서 자체로 창작한 노예이자기 《사파나》를 보고보았다.

이 작품은 하나의 농업과학기술혁신제기라고도 말할수 있다.

꽃피는 시기 농약부리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야 하며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편리적으로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제과와 같은 이 작품을 평양시농업대학에서 과학기술교육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작품은 평양시농업대학에서 과학기술교육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승한과수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농업일꾼들이 찾은 방도의 하나가 바로 곤충문화재와과학기술적인 과학기술이었다.

일꾼들의 지도원에 농장에서 자체로 창작한 노예이자기 《사파나》를 보고보았다.

이 작품은 하나의 농업과학기술혁신제기라고도 말할수 있다.

꽃피는 시기 농약부리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야 하며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편리적으로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제과와 같은 이 작품을 평양시농업대학에서 과학기술교육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작품은 평양시농업대학에서 과학기술교육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색기와생산공정 완성

618건설돌격대에서

618건설돌격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려있는 색기과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디다.》

색기과생산공정은 평양시에서 당위원회에서 운명하는 기공과정에 꾸려졌다.

이 공정에서는 일반기와 아크릴제의 장제와 광배를 분부하고 건조시켜 색기과를 생산하게 되어있다. 벨트판메이커의 한 로동직법으로 색기과를 생산하는 이 공정이 만가동하는 경우 많은 색기과를 생산할수 있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강일환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올해 대상건설돌격대 성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색기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자재와 인력을 지원해 주었다.

그의 일꾼들은 기술을 몰랐고 자신부터 실용공이 되어 앞장

618건설돌격대에서

618건설돌격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려있는 색기과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디다.》

색기과생산공정은 평양시에서 당위원회에서 운명하는 기공과정에 꾸려졌다.

이 공정에서는 일반기와 아크릴제의 장제와 광배를 분부하고 건조시켜 색기과를 생산하게 되어있다. 벨트판메이커의 한 로동직법으로 색기과를 생산하는 이 공정이 만가동하는 경우 많은 색기과를 생산할수 있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강일환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올해 대상건설돌격대 성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색기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자재와 인력을 지원해 주었다.

그의 일꾼들은 기술을 몰랐고 자신부터 실용공이 되어 앞장

618건설돌격대에서

618건설돌격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려있는 색기과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디다.》

색기과생산공정은 평양시에서 당위원회에서 운명하는 기공과정에 꾸려졌다.

이 공정에서는 일반기와 아크릴제의 장제와 광배를 분부하고 건조시켜 색기과를 생산하게 되어있다. 벨트판메이커의 한 로동직법으로 색기과를 생산하는 이 공정이 만가동하는 경우 많은 색기과를 생산할수 있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강일환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올해 대상건설돌격대 성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색기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자재와 인력을 지원해 주었다.

그의 일꾼들은 기술을 몰랐고 자신부터 실용공이 되어 앞장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색기와생산공정 완성

618건설돌격대에서

618건설돌격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려있는 색기과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디다.》

색기과생산공정은 평양시에서 당위원회에서 운명하는 기공과정에 꾸려졌다.

이 공정에서는 일반기와 아크릴제의 장제와 광배를 분부하고 건조시켜 색기과를 생산하게 되어있다. 벨트판메이커의 한 로동직법으로 색기과를 생산하는 이 공정이 만가동하는 경우 많은 색기과를 생산할수 있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강일환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올해 대상건설돌격대 성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색기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자재와 인력을 지원해 주었다.

그의 일꾼들은 기술을 몰랐고 자신부터 실용공이 되어 앞장

618건설돌격대에서

618건설돌격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려있는 색기과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디다.》

색기과생산공정은 평양시에서 당위원회에서 운명하는 기공과정에 꾸려졌다.

이 공정에서는 일반기와 아크릴제의 장제와 광배를 분부하고 건조시켜 색기과를 생산하게 되어있다. 벨트판메이커의 한 로동직법으로 색기과를 생산하는 이 공정이 만가동하는 경우 많은 색기과를 생산할수 있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강일환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올해 대상건설돌격대 성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색기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자재와 인력을 지원해 주었다.

그의 일꾼들은 기술을 몰랐고 자신부터 실용공이 되어 앞장

618건설돌격대에서

618건설돌격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려있는 색기과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디다.》

색기과생산공정은 평양시에서 당위원회에서 운명하는 기공과정에 꾸려졌다.

이 공정에서는 일반기와 아크릴제의 장제와 광배를 분부하고 건조시켜 색기과를 생산하게 되어있다. 벨트판메이커의 한 로동직법으로 색기과를 생산하는 이 공정이 만가동하는 경우 많은 색기과를 생산할수 있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강일환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올해 대상건설돌격대 성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색기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자재와 인력을 지원해 주었다.

그의 일꾼들은 기술을 몰랐고 자신부터 실용공이 되어 앞장

618건설돌격대에서

618건설돌격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실려있는 색기과생산공정을 꾸려나갔다.

경에 하는 최고 명도 자 집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디다.》

색기과생산공정은 평양시에서 당위원회에서 운명하는 기공과정에 꾸려졌다.

이 공정에서는 일반기와 아크릴제의 장제와 광배를 분부하고 건조시켜 색기과를 생산하게 되어있다. 벨트판메이커의 한 로동직법으로 색기과를 생산하는 이 공정이 만가동하는 경우 많은 색기과를 생산할수 있다.

현장지휘부 책임자 강일환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올해 대상건설돌격대 성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색기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자재와 인력을 지원해 주었다.

그의 일꾼들은 기술을 몰랐고 자신부터 실용공이 되어 앞장

